

3. 세계경제위기, 중미에의 충격

알레한드로 아라우스 L.*

2008년 미국에서 발발한 경제위기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중미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 미국에 매우 의존적인 이 지역의 경제는 수출 감소, 외국의 직접 투자와 송금 감소, 관광객 축소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조건에서 이 지역은 2009년 겨우 2.6%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글은 지역 내의 각국 정부가 생산자들에게 보다 근접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역내 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통화 확대 정책을 주장한다.

[Economía/ Crisis mundial/ Comercio/ Centroamérica;
경제/ 세계 위기/ 무역/ 중앙아메리카]

미국에서 시작된 현재의 세계적인 위기만큼 중미 지역에서 강력한 반향을 일으킨 위기는 없었다. 위기의 확산은 즉각적이었고, 신흥 경제들의 성장 목표에 영향을 끼쳤다. 중미와 같이 작은 규모의 경제에서 영향은 보다 직접적이었고 빨랐던 것이다. 세계 경제는 명백히 침체 국면에 있고, 선진국의 GDP 역시 2009년 0.3%로 수축될 것이다. 이 점이 신흥 경제들의 하강에 편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²⁾

* 멕시코의 경제연구교육센터(CIDE, Centro de Investigación y Docencia Económicas)의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센트로아메리카 대학-니카라과(Universidad Centroamericana-Nicaragua)를 졸업한 변호사이다. 현재 민간 컨설턴트와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1) 중미 지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라는 중미경제통합협정의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지협은 또한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파나마, 벨리스를 포함한다.

2008년 중반 이후 나타난 세계 경기의 하강 효과는 중미 각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체감되었다. 2009년 들어 가축 송금과 같은 직접적인 유동성 수단이 축소되고, 수출 소득이나 은행 채원과 같은 투자금이나 관광소득이 축소되면, 이 효과는 보다 결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중미 국가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오늘날처럼 외부 시장의 파괴적인 파급효과에 노출되어 본 적도 없다. 물론 이전에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효과를 수반한 다양한 위기가 있었다. 이 위기는 홍콩 주식시장의 갑작스런 폭락을 유발하고 다른 시장으로 번져나갔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러시아 같은 신흥 국가들에도 다른 위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중 어느 것도 이처럼 명백하게 중미 지역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구조화되었다고 할지라도, 1929년 대공황을 제외하고 중미 경제는 미국이 경험한 경기 후퇴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비록 대공황의 영향이 3년 후에야 나타나기는 했지만, 대공황은 권위주의 정부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회, 경제적 정체라는 긴 단절을 통해 이 지역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쳤다. 1929년 위기의 첫 번째 희생자는 중미 경제가 토대하고 있던 주요 자산인 커피였다. 위기 발발 이후 4년 동안 수출은 평균 55% 감소했고, 급속하게 다른 영향들이 파생되었다.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고,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은 일시적으로 유키되었고, 실업이 심화되었으며, 부의 집중이 강화되었다.³⁾ 2차 대전 막바

2) IMF, “Perspectivas de la economía mundial,” 6 de noviembre de 2008.

3) “이렇게 위기가 형성되었다. 경제는 토대부터 흔들렸다.” 과테말라 사회과학발전협회 (Asociación para el Avance de las Ciencias Sociales en Guatemala: Avancso), Centro América en el vértice de la historia, Cuadernos de Investigación, N°1, Avancso, Guatemala, 1990.

지에 이르러서야 이 지역의 생산 수준은 회복되었다.

중미 지역을 강타한 또 다른 위기는 1980년대의 내전이다. 이것은 이 지역을 전례 없는 깊이의 퇴행국면으로 밀어 넣었다. 경제 위기는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강타했고, 군사 예산이 공적 재원의 절반을 차지한 나라들과 고정 자산 및 인명의 대량 손실이 일어났던 곳에서 보다 더 극적이었다. 경제 회복은 9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 하에서 진행되었다. 농업 수출에 기반을 둔 경제들은 시장 메커니즘의 확대와 공공 부분의 역할 축소에 따라 보다 확대된 개방에 노출되었다. 구조조정과 구조변화 정책으로 국제적인 기준의 거시경제 지표들은 호전되었다. 이러한 틀 내에서 경제 성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자본 유입, 곧 외환의 유입(송금)으로 해석될 노동력의 송출(이주), 마끼라 수출의 확대, 그리고 몇몇 경쟁 부문의 발전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긍정적인 결과들은 국민들의 낮은 수입수준과 빈곤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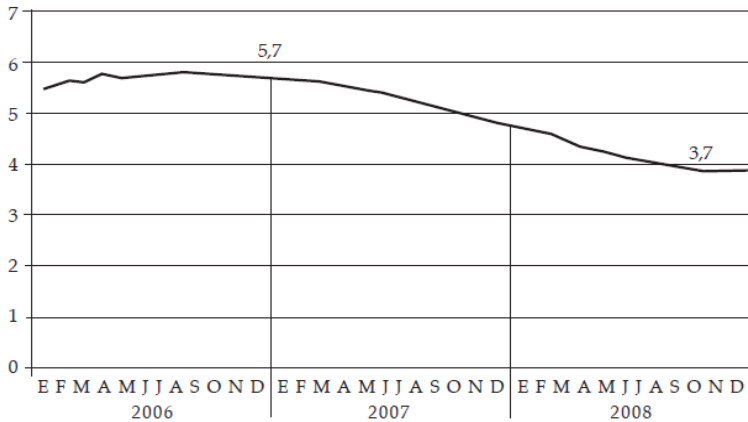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이 지역 경제는 높지는 않지만, 현재의 위기에 보다 강력한 거시경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성장의 결과로 인해 일정하게 강화되었다. 결국, 오늘날 중미는 핵심 거시 경제 지표들에서 안정성을 기록하고 있다. 즉, 외채는 감소했고, 외환 보유하고 수준은 안정적이고(3개월 수입분과 동일한), 수출 증가는 고용을 확대했으며, 재정 적자는 안정적이고 통제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경상 수지 적자, 에너지 자원의 높은 의존도, 그리고 식량 수입의 필요성 등 많은 약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중미에서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과 위기 확산의 다양한 경로들을 분석해 보자.

경제의 하강

2009년도 성장 전망은 주요 부문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제로 월간 경제활동 지표(IMAE)에 의해 측정된 경제활동은 <도표 1>이 보여주는 것처럼, 2008년 동안 하강추세를 보여 주었고, 2009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리라고 예측되었다.

<도표 1> 중미의 생산: 월간경제활동지표(IMAE)의 연내 변화율, 중미 평균(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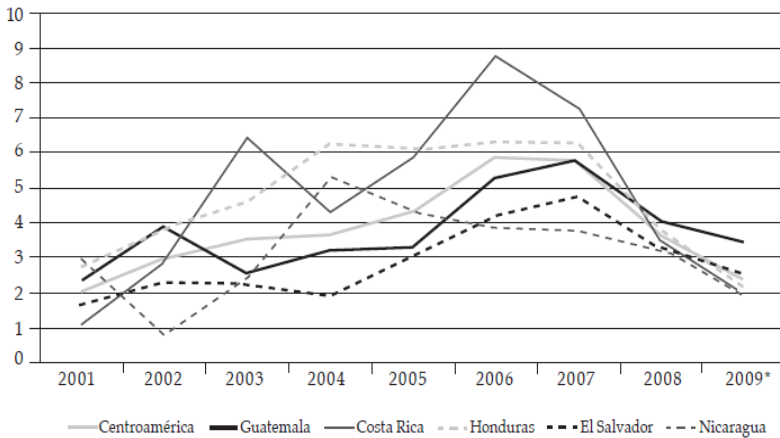


출처: 중미 각국 중앙은행자료를 필자가 가공함.

2008년 중반부터 경제 위기는 이 지역의 성장을 하강 국면으로 이끌었다. <도표 2>가 보여주는 것처럼, 2008년 경제는 3.7% 성장했는데, 이는 2007년 달성한 5.6%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 경제 예측에 따르면 중미 경제는 2009년 2.7% 성장하겠지만, 38,100,000명에 달하는 현재 인

구가 연평균 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도표 2> 중미의 GDP: 연간 변화율(백분율)



* 2009년 수치는 각국의 예상치에서 나옴.

출처: 중미 각국 중앙은행자료를 필자가 가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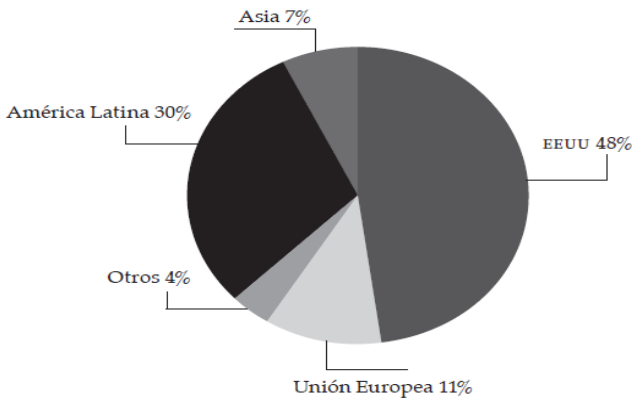
가장 낮은 증가율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 재정은 이중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재정 수입에서 부가가치세(IVA)와 소비 행위에 매우 민감한 다른 간접세들의 비중을 고려할 때, 실제로 경기 하강은 재정 수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실제적인 재정적 한계가 있는 사회 정책이나 투자 정책을 공공지출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틀 내에서, 경상지출(특히 급여, 보조금, 지방 자치단체 교부금)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의 감소를 공적 투자를 통해 보충할 필요성에서 보다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몇몇의 경우에, 이런 이중

효과는 현재 재원을 더욱 축소시키고, 정부로 하여금 신규 차관을 찾게 할 것이다. 즉, 보다 많은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수출의 성장 축소

중미 지역 수출의 약 48%는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고(도표 3 참고), 이중 30%는 수출자유지역(마길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다른 주요 시장은 EU시장(수출의 11%), 중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라틴아메리카(30%), 아시아 시장(7%)이다. 보다 다변화한 시장을 가진 코스타리카의 경우 중국시장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도표 3> 중미의 주요 수출지역: 전체 수출에 대한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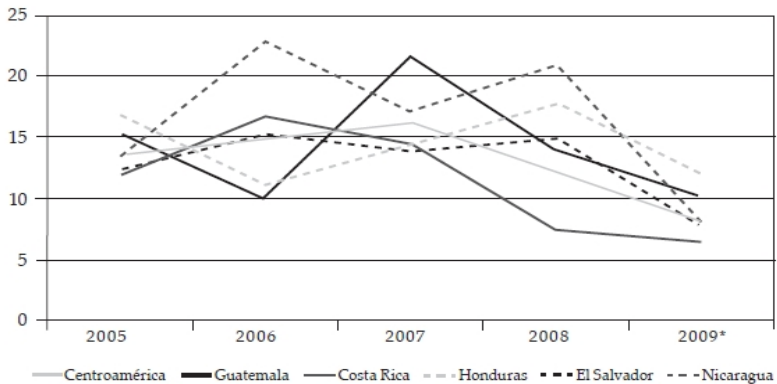


출처: 각국의 정보를 필자가 가공함.

이 시장들, 특히 미국 시장의 소비 축소는 이미 수출 부문에 영향을 주었다. <도표 4>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수출 추세가 2009년에도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대비 약 8% 성장이 예측된다(2008년 동안 수출은 2007년 대비 12.5%의 성장을 기록했다).

<도표 4> 중미의 수출: 연간 변화율(백분율)



* 2009년 수치는 각국의 예상치에서 나옴.

출처: 중미 각국 중앙은행자료를 필자가 가공함.

美상무부 국제무역국 섬유외류실(Otexa)의 데이터에 의하면, 2008년 10월 현재 미국의 마길라 제품(섬유) 수입 감소는 약 3.2%였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EU의 소비 수축은 중미의 대외 부문에서 하강 효과로 이어진다. 주된 영향은 커피, 육우, 생선, 설탕, 섬유, 그리고 식료품과 원자재 값에서 나타난다. 이것들이 지역 내 각국에서 외환과 고용의 결정적인 원천 역할을 해왔다.

수입과 관련하여, 경제 위기는 원유, 다른 금속이나 화학 원자재, 그리고 다른 곡물(밀, 귀리, 호밀) 같은 일용품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의해 유리한 측면을 제공할 수도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입은 상당히 높은 비

율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가격의 하락이 수출의 하락을 보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은 무역 적자의 확대를 의미할 것이고, 이런 적자는 미국의 경우 경기 후퇴 이전에 이미 상당히 늘어났다. 동시에 이 상황은 지역 국가들의 외환보유고와 환율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송금 수입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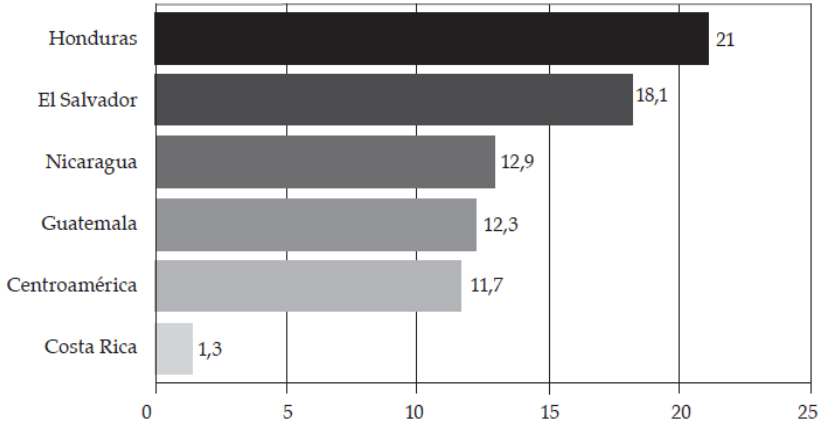
송금 수입은 중미 지역에 있어 GDP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비율은 온두라스(GDP의 21%)와 엘살바도르(GDP의 18%)에서 보다 높으며, 과테말라와 니카라과가 그 뒤를 잇는다(도표 5 참고). 송금의 영향은 인상적이다. 즉,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중미 지역 가계의 65%가 가족들이 보내준 매달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고 있다.⁴⁾ 거의 중미 이주 인구의 74%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설, 과일 수확, 서비스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 스페인은 코스타리카와 함께 다른 중요한 일자리 제공 국가이다.⁵⁾

세계적 위기와 함께 보다 강조될 중요한 문제는 강제 귀국이다. 이는 미국과 스페인에서 건설과 서비스 부문의 침체에 의해 유발되었다. 중미 국가들은 미국과 체결된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에 따라 임시 노동허가의 필수조건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정부들이 이런 상황에 개입하여 항구적인 방법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중미 국가들은 스페인의 경우에서 이민 규칙에 대한 허약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4) Manuel Orozco, "Estimating Global Remittance Flows: A Methodology," Inter-American Dialogue/Global Migrant Origin Database(GMOD), 2007.

5) Fondo Intenacional de Desarrollo Agrícola(IFAD): "Sending Money Home; Worldwide Remittance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IFAD, 2008.

<도표 5> 중미에서 가족 송금의 중요성:
2008년 GDP대비 연간 유입액(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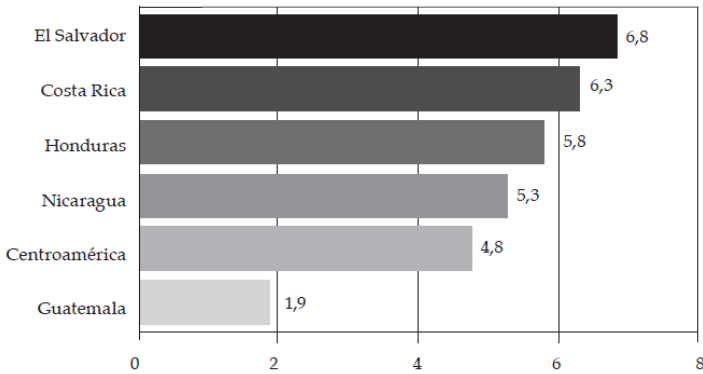
출처: 중미 각국 중앙은행의 자료와 <유엔 산하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의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8을 이용하여 필자가 가공하였음.

자본과 해외 직접 투자의 축소

미국, 중미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간 자유무역협정(TLCAC-RD)의 체결부터 중미 국가들은 보다 많은 자본의 유입을 위해 경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입은 기대와 달랐고, 미국의 경기 후퇴로 인해 상황은 보다 복잡해졌다. 해외직접투자(IED)는 수출, 소비, 일자리 창출,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에 있어 압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미의 각국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의 지역 총액은 GDP의 약 5%에 달한다.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많이 유인하는 나라들은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로, 중미 지역에 투자되는 해외 자본의 약 65%를 흡수한다(도표 6 참고).

해외직접투자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가족 송금이 해외직접투자의 두 배 반이 넘는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송금으로 인한 수익의 마지막 종착지는 기본적으로 소비 부문이다. 이 점이 한편으로는 수입을 억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빈민 계층에게 우호적인 재분배 효과를 만든다.

<도표 6> 중미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
2008년 GDP대비 연간 유입액(백분율)



출처: 중미 각국 중앙은행자료와 CEPAL의 전술한 자료를 필자가 가공

현재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마길라 수출에 기대고 있는 중미-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협정(TLCAC-RD)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 협정이 수출을 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 보다는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을 위해 더 우호적인 조건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표들은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전자의 조건들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카리브지역개발촉진계획(Caribbean Basin Initiative)으로 인해 이미 존재했다. 자료들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즉, 중미에서 미국 시장에의 주된 접근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재화로부터 진행되는데, 경제

위기로 이 부문이 심각하게 축소된 것이다. 온두라스에서만 이 부문에서 3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니카라과에서 약 만 9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외부 자본의 유입을 유인하는 것 이외에도, TLCAC-RD 조약 체결을 정당화하는 다른 요소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의 이용 가능성이었다. 멕시코는 중미 지역과 세 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하나는 코스타리카, 다른 하나는 니카라과, 나머지 하나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북쪽의 삼각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는 (보다 작은 규모의) 캐나다와 함께 중미 지역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로 변모했다. 이런 틀 내에서 멕시코 경제의 하락은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외국직접투자 흐름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이는 TLCAC-RD를 통해서 얻어진 작은 이익까지도 무효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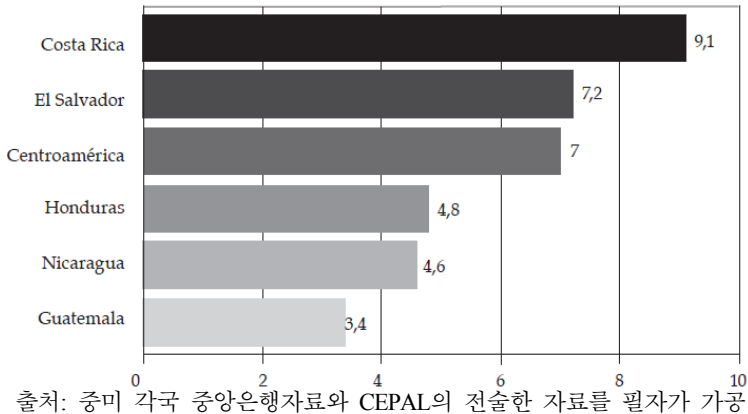
관광 수입의 감소

관광 부문의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는 목표치 대비 약간의 감소를 보여 준다. 중미 각국의 중앙은행이 교통서비스 항목 및 관광과 결합된 다른 수입 항목에서 제공한 자료들은 약 45억 달러를 나타내는데, 이는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도표 7), 전체 지역 GDP의 7%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역의 서비스나 몇몇 생산 활동에서 관광이 만들어낸 부가 가치가 덧붙여져야 한다. 주된 관광객 방문국가는 코스타리카인데, 이 나라에서도 원래 목표치 대비 관광 수익이 축소되었다.

2008년 관광수익은 경제위기 이전의 목표였던 12%가 아니라, 약 6.5%

증가했다. 2009년에도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세계 관광이 2008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겨우 2~3%로 저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2009년에도 0~2% 내의 여전히 낮은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중미는 특히 호텔 부문, 무역, 식료 부문에서 이러한 하락의 영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도표 7> 중미에서 관광수익의 중요성:
2008년 GDP대비 연간 유입액(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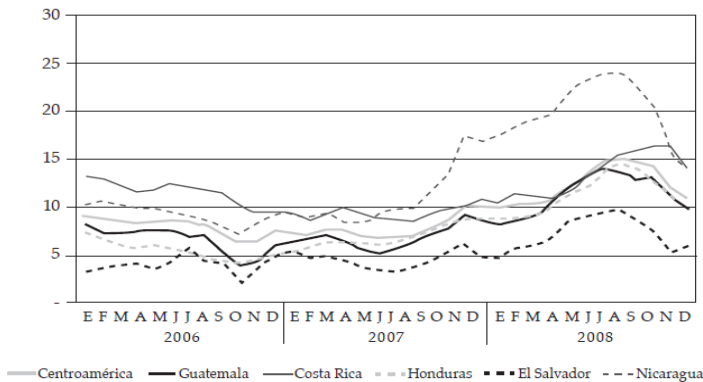
사회 정책에서 위기의 영향

중미에서 인구의 65%는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개실업률도 12% 이상으로 높다. 마찬가지로 인구의 약 54%는 100개 중 80개 기업이 소규모 혹은 영세 기업에 머물러 있는 경제 구조 내에 노동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지역의 국가들은, 몇몇 나라들

은 특히 중점을 두어, 최근 4년 동안의 성장에 발맞춰 비록 작은 수치지만 빈곤과 주변성을 완화시켰던 사회 정책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로 이런 진전들은 위기에 봉착했다. 사회 지표들은 2008년에 상당부분 유류비용 상승으로 이미 영향을 받았다. 이 비용의 증가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가져왔다(도표 8). 이는 식료품, 의약품, 의류, 서비스 구매에 있어 임금노동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끼쳤고,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최빈민층의 접근을 제약했다. 사회적 지출의 실질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표 8> 중미의 인플레이션: 2006-2008년 연간 변화율(백분율)



2009년 중미 각국의 사회적 지출은 위기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평가된다. 각국이 적절하지 않은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에 따라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단기간 내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전망을 가지고 보다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경상지출의 확대는 미래의 사회정책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위기의 복합성에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최빈곤층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정책이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유인책은 2009년도 인플레이션의 하락이다. 목표치는 지역 평균 5.8%이다. 이러한 축소는 유류 및 밀가루와 호밀과 같은 몇몇 식료품, 그리고 금속이나 화학 원자재 가격의 하락의 결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은 몇몇 일시적인 하락을 넘어서 비용구조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상된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즉, 역내 국가들은 자신들의 사회 정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아마도 실업의 증가를 겪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빈곤과 절대빈곤도 보다 심화될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 이런 지역적인 상황은 보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기에 대한 이 지역의 대응책

이미 지적된 것처럼, 국제 금융 조건과 세계 경제의 경기 후퇴 효과는 이 지역의 성장 목표치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적 긴장이 나타났다. 각국 정부는 위기의 영향과, 2009년 이 위기를 중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단 동원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 이런 그림이 2010년 너머까지 지속된다면, 중미는 보다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위기의 기원이 외래적이고, 또 그 효과가 중미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각국은 이전 시기의 성장, 생산 구조, 제도적인 토대와 사회 발전에서 얻어진 결과들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자신만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각국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수단을 발

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몇몇 해결책들은 개별 국가 단위를 넘어 중미 통합과정을 통해 얻어진 제도적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 중미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지라도 말이다.

무엇이 이러한 전략이 될 수 있는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2009년의 인플레이션이 2008년보다는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는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일정한 조정 여지를 제공한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을 만들지 않고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일 것이다. 과테말라나 코스타리카 같은 몇몇 정부들이 이미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을 발표했지만, 이는 가장 취약 부문에 대한 보호나 고용을 지속하기 위한 직접적인 유인책을 포함하지 않은 대체로 제한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중미 지역 전체가 변변치 않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몇몇 나라의 경우 외환보유액 규모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기준금리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신용을 이용해야겠지만, 통화정책의 유연화 혹은 확대를 통해 반경기적 수단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위기의 순간에서도 방어를 도와주고 강화하기 위한 다자적인 충위의 지원 가능성이 존재한다. 많지는 않지만, 외부 지원 기관이 존재한다. 즉, IMF 및 중미경제통합은행과 미주개발은행 같은 지역 충위의 다자간 금융기관 등은 몇몇 대안이다. 이런 조직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면, 이런 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조달 선을 가지고 있다. 재정정책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고 위기관리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정향된 재정 자극책을 동반한다면, 차관도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는 IMF로부터 8억 달러의 신용한도를 얻었다.⁶⁾

중미 지역 정부들은 미래의 성장에 기여할 부문들에 신용을 제공하고, 사치품 소비를 줄이며, 또한 식료품 시장이 사회적 지표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효율적인 개입을 복돋우면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몇몇 중앙은행들은 일정한 유동자산을, 특히 수축 위험이 있는 대외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생산 부문에 신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유연화 메커니즘을 이미 가동시켰다. 이 신용은 2009년에는 제한적이고 금리가 비쌀 것이라고 예측된다. 실제로 제한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이 두 자리 숫자를 넘은 2008년 중반까지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축소되어 한자리 수치로 자리 잡게 되면, 중앙은행들이 지불준비금을 줄이고 2008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던 이자율을 낮출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은 모든 나라에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다. 즉, 미 달러 공용화폐화 정책으로 인해 화폐정책을 갖고 있지 못한 엘살바도르나,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매우 낮은 수준의 지불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니카라과 같은 나라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 창조성과 활동성

중미 지역에는 주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한정된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거시경제 지평을 확대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프라와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로 재정지출을 재조정하는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각국의 경제 정책들이 확립되고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국의 수출업자들에게 역외의 침체된 시장보다는 더욱 가깝고 편리한 대안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6) IMF 집행이사회는 엘살바도르와의 예방적 차원의 8억 달러 스탠바이 협정(stand-by)을 승인했다. 이는 신뢰할 만한 임시적 충격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세계금융위기 결과 및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역내 무역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빈곤층을 위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수단들은 특히 식료품이나 비내구 소비재 부문에서의 수입 대체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생산 및 무역 구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될 것이다. 중미 지역은 비내구 소비재의 순수입국이다. 몇몇 지역적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의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증진하기 위한 시장개입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 대체, 사치재 소비의 축소, 공적 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비에 있어서 합리성은 무역적자를 주목할 만하게 줄이고, 거시경제 정책에 크고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연성과 창조성은 생산자들에 필요한 지원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아무리 방향이 좋다고 해도, 제도, 민주정부, 민주주의 등이 함께 강화되지 않는다면, 거시경제 정책들은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미에서 2009년 진행되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대통령 선거가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지방 선거의 결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문제시되었던 니카라과에는 정치적 불안정성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다. 현재 통치자들, 그리고 2009년 정권을 차지할 지도자들의 통치는 통일된 방법으로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이성훈 번역)

참고 문헌

Secretaría Ejecutiva del Consejo Monetario Centroamericano, www.secmca.org/

Secretarí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www.sieca.org.gt/site/